소년단

1955.2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소년단원 동무들은 오늘도 공부를 잘하고 있겠지요!

나는 동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며 따뜻이 잘 자도록 조국을 튼튼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소년단원 동무들에게서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의 편지에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려 달라는 부탁이 많았습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서 부탁받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는 해방 후 비로소 참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방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 가시자 일'손이 없다 하여 지주놈에게 어머니는 소작 땅마저 떼우고 나는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어린 소년으로서 광산에 가서 고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때 왜놈들에게 수모받고 억눌려 살던 일을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치가 떨립니다.

그러나 8.15 해방과 함께 나의 앞에는 행복한 배움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나는 곧 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지금도 소년단 생활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고, 웃어른들의 가르침과 소년단에서, 주는 위임을 어기여 본 일이 없이 꼭꼭 실천하여 칭찬 받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임과 규률을 때때로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과 웃어른들이 준 가르침과, 소년단과 친우들이 준 충고와 방조를 나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위임과 규률을 잘 지킬 줄 아는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소년단에서 자라난 나는 인민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항상 상관의 명령과 군대 내의 규률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영예로운 전사로 공화국 2중 영웅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난관 앞에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뚫고 나가는 곳에 이루지 못할 일이란 없으며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예가 빛날 것입니다.

동무들은 배움터에서 나는 조국 보위의 초소에서 앞으로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둡시다!

1955년 2월 8일

공화국 2중 영웅

김 기 우

우리들의 자랑

김 우 철

이제 다섯 밤을 자고 나면
우리 학교에서는 영웅 형님 모신단다。
이애들아 너희 분단에서는
영웅들을 배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니?

영웅 형님 모시려고、
노래와 춤도 련습하고 있겠지。
꽃다발과 선물도 마련하고 있겠지。
그리고 그리고 영웅 연구 스크랩도 만들고 있겠지。

소년단원 동무들아 우리가 만든
영웅 연구 스크랩은 참말 훌륭하단다。
영웅 형님 모실 때마다 스크랩은
더욱 훌륭하게 자랑으로 찬단다。

우리 분단 위원장이 만든 표지에
벽보 주필 수 놓은 솜씨를 보아라。
월계수 테두리 안에 금실로 수 놓은
영웅 표식 금별 메달 눈부시구나。

첫장에는 꽃테 두른 원수님의 초상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겨 있단다
《 …… 새 조선의 꽃봉오리 ……
참되게 잘 배워서
민주주의 새 조선을 세우는
영웅들이 되여 주기를 바란다 》

그다음 장 펼치면 무엇이 있는지,
사랑하는 동무들아 맞춰 보아라。
준비하자! 손들고 수령님께 올리는
우리들의 맹세가 씌여 있단다。

계획을 넘쳐 내는 아버지처럼,
방선을 지키는 인민군 형님처럼,
성적표마다에 5점을 꽃피우고
새 조선을 빛내는 일군이 되겠다고

그림과 노래로 수 놓은 그 속에
자랑찬 나의 맹세도 들어 있단다。
노래로 엮은 맹세 들어 보아라。
《나는 커서 영웅이 될테다!》

차 상률 영웅의 전투 이야기에서

일 림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함북 어랑 고급 중학교에서 공부를 한 차 상률 영웅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참으로 훌륭하게 싸워 이름을 떨친 저격수 영웅입니다.

1951년 12월 추운 겨울날 차 상률 영웅이 속해 있는 대대는 《신발 고지》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지를《신발 고지》라고 부른 것은 산 릉선이 미끈히 뻗어 내려 가다가 갑자기 까부라져서 마치 군관들이 신고 다니는 장화와 같았기 때문이였지요.

《신발 고지》는 3면으로 적의 사격을 받을수 있어 방어하기가 퍽 어려웠지요. 이 고지에서 70m 앞에 있는 적들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무턱대고 마구 포를 쏴 왔고 비행기로 폭탄을 억수로 퍼부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사들이 이 고지를 지키기 시작한 다음부터 적들은 함부로 눈 앞에서 얼씬거리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적을 감시하던 우리의 감시병이 불행하게도 적의 총탄에 의하여 희생되였답니다. 자기 분대의 사랑하는 한 전우를 잃은 분대장 차 상률 영웅의 가슴은 몹시 아팠습니다.

《제 깐 저놈들을 그냥 둘 수 있나. 이 원쑤를 몇배로 갚아야지》. 이렇게 분대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차 상률 영웅은 희생된 감시병의 보총을 들고 턴넬에서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는 전호 벽에 숨어서 적들이 눈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눈이 하얗게 덮인 맞은편 산 우에 세놈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놈들은 우리의 전사들에게 발각될가바 겁이 났는지 무엇인가 언 손질을 하면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차 상률 영웅은 우선 세놈 중 한놈을 묘준하여 쐈습니다.

본래부터 전사들 속에서 총 잘 쏘기로 이름난 그의 묘준은 정확하였지요.

총알에 맞은 놈은 고함을 치며 뒤로 벌떡 나자빠졌고 나머지 두놈은 막 굴며 도망쳤습니다.

《됐어! 이렇게 깜쪽 같이 잡아 치우면 놈들은 이젠 머리도 들지 못할 거야》.

첫 성공에 자신을 부친 차 상률 영웅은 몹시 기뻐하였지요.

이리하여 그의 저격 활동은 계속되였고 벌써 여러명의 적들이 죽어 넘어 갔지요.

이렇게 되자 적들은 약이 바짝 올라 막 미쳐날 지경이였습니다.

적들이 약이 오를수록 우리의 포병들은 더욱 맹렬히 포사격을 하였고 저격수들의 활동은 더욱 눈부시였습니다.

하루는 눈 앞에서 적의 기관포는 쉴 새 없이 짖어대였습니다.

그러나 놈은 우리의 저격수들이 무서워서 머리를 기관포 아래에 틀어박고 좀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얄미운 기관포 사수를 잡아 치울테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호 속에 엎디여 적 기관포 화구를 겨누고 쏘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 사수는 맞지 않고 기관포는 묘준이 없이 덮어놓고 요란히 울부짖었습니다.

발과 손가락이 막 얼어 드는 추위 속에서 진종일 적 사수를 노렸으나 도무지 머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차 상률 영웅은 좋은 꾀를 생각해 냈지요.

한 대원에게 시켜 나무대기에 모자를 걸어 들고 호 안에서 쳐들었다 낮추었다 하게 하고 자기는 딴 곳에서 적을 노렸습니다.

그러자 적사수놈은 이것이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사격해 왔지요.

이때 적탄에 모자가 날아나자 마치 사람이 죽은척 하고 호 속에서 비명을 올렸습니다.

적 사수는 정말 맞은 줄로만 믿고 동정을 살피려고 머리를 추켜 들었지요.

바로 이 순간 영웅의 보총알은 그놈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잘 했어! 인젠 들어 가자구》

이때 곁에 있던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예요 이제 또 한놈 더 잡아야지요 이제껀 미끼입니다》.

벌써 많은 경험을 쌓은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림 없었지요. 조금 더 기다리니 두놈이 살금살금 시체를 거두려고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미끼에 걸린 적 두놈도 깜쪽 같이 그자리에 딩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저격 활동의 경험은 부대를 넘어 전 전선에 알려졌고 그의 모범은 수 많은 저격수들을 길러 냈습니다.

때마침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께서 인민군 부대들에게 저격 활동을 강화하라는 명령이 내려 왔습니다.

이 명령은 차 상률 영웅을 더욱 고무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복쑤 기록장에 적 150명을 기입하였지요.

불과 며칠 동안에《신발고지》의 전사들은 80여명의 적을 잡았습니다.

X X X

따뜻한 봄 날이 돌아 왔습니다.

차 상률 영웅은 오늘은《뚱굴 모자》(양캐 장교)가 나온다는 중대부의 련락을 받고 대원 한명을 데리고 《뚱굴 모자》 사냥을 떠났지요.

두 저격수는 밤을 타고 골짜기를 따라 적의 중대부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턱 밑에 내려가 숨었습니다.

긴긴 밤이 새고 다시 해가 중천에 떴지만《뚱굴모자》는 솜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저격수는《뚱굴 모자》양캐장교를 잡기 위하여 보통 졸병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총질하였다간 목적했던 놈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눈이 피로하고 배가 고픈 것도 참으면서 위장한 숲속에서 진종일 적들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중대부에서는 두 저격수가 혹시 잘못되지나 않았나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대낮이 기울었을 때에야 짚차를 탄 세놈이 뻔뻔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한놈은《뚱굴 모자》또 한놈은 《헤르멧트》이고 나머지 놈은 철갑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숨어 있는 바로 아래에서 한 미군 통신병이 개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지요. 만약 그 놈이 가까이에 온다면 그들은 발견될 것이고 그놈을 잡는다 해도 총소리를 내면 양캐 장교놈들이 또 숨을 것이였지요.

두 저격수는 마음이 안달았습니다

《태연이 ! 넌 통신병놈을 겨누게》. 차 상률 영웅은 태연이에게 속삭이고 자기는《뚱굴 모자》를 겨누었습니다.

때마침《뚱굴 모자》와《헤르멧트》가 한데 붙어 가며 열심히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두 저격수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뚱굴 모자》는 흰

장갑을 낀 손을 허공에 대고 허비다가 앞으로 나자빠졌고《헤르멧트》는 데굴데굴 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통신병놈은 개울물 속에 코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두 저격수는 고지 우에서 울리는 전우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인젠 뭘 하자우?》.

《가만 있게 아직 할 일이 있어》. 차 상률 영웅은 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몇시간 더 지나자 죽은 양캐 장교를 실으려 헤리꼽터가 잠자리처럼 날아 내려와서 죽은 놈의 시체를 걸어 싣고 다시 날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끼가 크니 걸리는 것도 크지…》차 상률 영웅은 이렇게 말하면서 태연이와 함께 헤리꼽터에 사격을 했지요.

안만 총알을 맞아도 떨어 안진다고 놈들이 자랑하던 미군 헤리꼽터는 두 저격수의 보총에 맞아 확하고 공중에서 불이 당겼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승리의 환성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두 저격수의 가슴은 항상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슬기로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 상률 영웅은 이렇게 대담하고 용감하고 참을성 있는 저격 활동으로써 자기 혼자서만 156명의 적을 잡았습니다.

이리하여《신발 고지》앞에서 적들은 우리 저격수들에게 겁을 집어 먹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어도 두더쥐처럼 땅 속에 박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끝

김 성 춘

멀건 안남미 쌀죽으로 저녁 요기를 하고난 할아버지는 담배를 한대 피우고 나선 곧 누우셨습니다.

오늘도 남의집 온돌을 고쳐준 삯으로 몇푼 돈을 받아 가지고 늦게야 돌아온 할아버지는 얼음'장 같이 차거운 방인데 그래도 남철이의 누데기를 아래'목에 깔아놓고 웃목에 쪼구린채 누우셨습니다.

남철이는 등잔'불을 돋구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정말 주무시나 하고. 아닌게 아니라 깊이 잠드셨다가도 남철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보고 계신듯이 눈을 뜨시고 《어서 자지 않구》 라고 하시는 할아버지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정말 곤히 잠드시였습니다.

《기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써야지》.

남철이는 학교 다닐 때 쓰던 공책을 내놓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북조선에 계신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철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불러보고는 쓸 말은 많은데 무엇부터 써야 좋을지 몰라 턱을 고이고 멍하니 있다가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의용군으로 나간 후 조선의 남쪽에 있는 우리 마을은 얼마 안있어 다시 미제 강도놈들의 강점 속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어머니는 인차 놈들에게 잡혔습니다》남철이는 그때 일이 머리에 되살아 올라 그만 연필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다시 연필을 쥐였습니다.

밖에서는 매운 눈바람이 불며 창구멍으로 윙윙 날아 들어 옵니다.

《…원쑤들이 다시 마을로 들어오게 되였을 그때 어머니와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북으로 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늙으신 할아버지가 길'가에서 병에 걸려 더는 걷지 못하게 되였지요. 그러다가 그만 세식구는 원쑤놈들에게 붙잡혔답니다.

간악한 놈들은 어머니를 북으로 후퇴하려 하였다는 《죄》로 다짜고짜로 죽이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길'가에서 헤매게 되였습니다.

늙으신 할아버지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남철아 아버지가 올때까지 고생을 참자—고 하시면서 남의 집 종살이도 하구 남의 집 온돌을 고쳐 주기도 하구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하시면서도 나를 학교에 붙여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는 끝내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쓰고난 남철이는 학교에서 쫓겨날 때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점심 시간이였습니다.

점심 시간은 남철이처럼 점심밥을 못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집 아이들에게는 공부 시간보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였지요.

《넌 무슨 반찬이야?》.

《난 닭알 반찬이야》.

《이것 봐 소고기 장조림》.

이렇게 밥그릇을 열어 보이며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점심을 먹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남철이처럼 점심밥을 못 가져온 많은 아이들은 점심 시간이 되면 약속이나 한듯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지요.

바로 이런 어느 점심 시간이였습니다.

남철이는 자기와 같이 점심을 못가져온 상범이와 함께 마당에서 땅크 놀음을 하였지요.

한창 신이난 남철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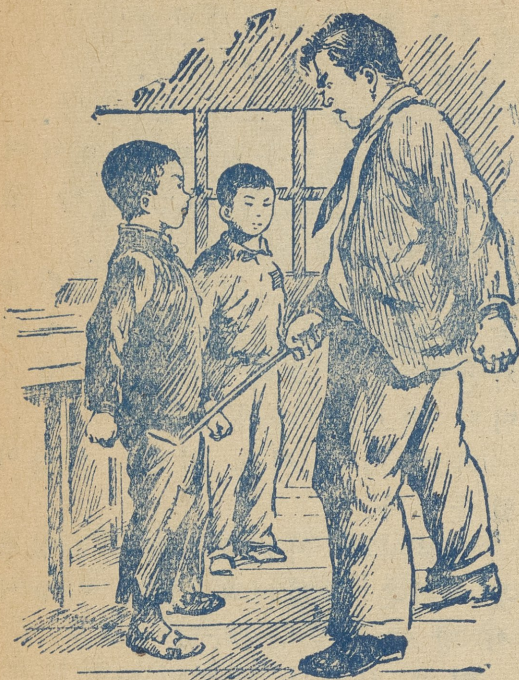
《인민 군대 땅크, 용감한 땅크》하고 무심코 웨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질로 이름난 학교 교장놈이 이것을 내다보았지요. 그리하여 남철이와 상범이는 당장 교장실로 끌려 갔습니다.

《뭐이? 한번 더 말해. 이 자식아》.

교장놈은 귀뿌리가 빠지도록 귀를 잡아 나꾸며 남철이의 뺨을 연방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나 남철이와 상범이는 《잘못》을 빌기보다 속에서 치미는 분'김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 까딱 않구 서 있는 것 봐—》 하고 교장놈은 《너희들이 앉을 자리는 없다. 당장 학교를 나가! 이 죽일놈》 하며 남철이의 머리를 마루 바닥에 쳐

박으며 이번에는 연신 구두발로 차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날부터 남철이와 상범이의 이름은 출석부에서 빨간줄로 지워졌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빨갱이라고 나를 쫓아 냈습니다. 그때 맞은 왼쪽 귀에서는 지금도 고름이 나오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따금 쿡쿡 쏘기도 해서 밤에는 잠도 잘 못잡니다》. 남철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고 아버지가 한없이 그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막 아버지한테로 달려갈 생각이 치밀어 오는 것이였지요.

《북 조선으로 기차가 마음대로 달린다면 아버지를 만나 볼 수 있겠지》.

남철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솜바지 저고리도 입지 못하고 끌재가 까맣게 묻은 다 해진 누더기를 입으신 할아버지는 이 몇해 동안에 정말 늙으셨습니다.

눈도 쑥 들어가고 볼이 움푹패이고 뼈만 앙상합니다.

6•28 후에 우리 마을이 해방되였을땐 그렇게도 기뻐하시던 할아버지, 옛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여 언제나 잠자리에 들면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던 할아버지— 남철이는 늙으신 할아버지를 들여다 볼때 미제와 리승만 역도놈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편지 쓰던 것도 잊고 타 오르는 불꼬리만 쳐다 보던 남철이는 다시 연필을 쥐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가 계시는 북 조선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쓴 구절을 벅벅 지우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인제 원쑤놈들과 싸울 수 있는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죽이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간 원쑤놈들과 싸우겠어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싸우겠어요—아버지 저는 《호소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조국이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남 조선의 어린이들도 북 조선의 소년들 처럼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즐거운 야영 생활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아요.

나도 우리 동무들과 함께 이 《호소문》을 받들고 힘 자라는데까지 남 조선에서 싸우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들을 도와 드리겠어요

상범의 형님은 훌륭한 공장 아저씨예요. 나는 오늘 상범이와 같이 거리와 마을의 담벽에 《호소문》을 붙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호소문》이 아니예요! 저는 래일 아침 우편국 뒤'골목에서 상범이와 만난답니다. 내가 담벽에 풀을 칠하면 상범이가 형님에게서 받은《호소문》들을 불인답니다. 경관놈들이 암만 미쳐 날쳐도 우리를 붙잡진 못할거예요. 우리와 함께 싸우는 동무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 보구 또 6•28후에 그러던 것처럼 김 일성 원수의 초상을 모신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어요. 참 6•28 후 우리 마을은 얼마나 행복하였어요, 가난한 아이들도 학교에서 행복하게 배울 수 있지 않았어요. 꼭 그런 행복한 날이 올 것이예요…》.

이렇게 편지를 다 쓰고 난 남철이는 이 편지를 정말 아버지가 받아 볼 수 있을가?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 이 편지를 우체통에 봉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남철이는 최고 인민회의 호소문 내용이 전 조선 사람들의 한결 같은 념원인만큼 그것은 반드시 실천되고 조국은 통일되고야 말리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편지도 마음대로 남북을 오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남철이는 그리하여 이 편지를 그때까지 상범의 형님에게 맡겨 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철이는 밝아올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동무들을 더 많이 모아 용감하게 싸워 나갈테다!》 남철이는 굳게 굳게 마음 속에 맹세를 다지며 할아버지 곁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치지 못할 편지를 가슴에 앉은채…….

…원산 제 1 고급 중학교대 제 13 분단 1반에서…

박 필 선

학교에서 돌아 온 계천이는 책상에 마주 앉았다.

《오늘은 꼭 일과표 대로 실행할테다!》 하고 속다짐하면서 우선 제일 뒤떨어진 《력사》 책을 펴들고 소리 높이 읽었다.

그러나 밖에서 어린 동생들이 떠들며 노는 목소리를 듣자 놀고 싶은 생각에 아무리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깨달을 수 없었다.

《에이, 이런 땐 아무리 공부해도 쓸 데 없어! 잠간 놀구와서 하는 것이 좋아!》 하고 생각한 계천이는 동생들이 놀고 있는 학교 마당으로 달려갔다.

사실 계천이는 동무들에게서 자주 이러한 충고를 받아왔다.

《계천 동무가 학습 성적이 뒤떨어진 것은 언제나 놀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의지가 약한 탓이야!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면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이야!》 라고…….

동무들의 이러한 말은 옳았다. 계천이는 산수, 지리, 력사, 자연—이 네 과목에서 늘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집에 돌아 와서는 복습도 별로 안하고 저녁 늦도록 놀기만 했었다. 그래서 동무들은

계천이의 이와 같은 행동을 고쳐 주기 위하여 그의 일과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일과표대로 실행하면서 공부하는 굳센 의지를 키우기에 노력하라고 여러번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마다 계천이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며칠 동안은 일과표를 실행하는데 애써도 보았다.

그러나 계천이는 또 며칠이 지나 가면 그러한 결심을 오래' 동안 간직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였다.

학교 마당에서 계천이가 한창 공차기에 정신이 팔렸을때 학교에서 좀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반장 정식이가

《계천아! 래일 숙제 꼭 잊지 말아!》 하고 계천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어, 걱정 말아! 숙제는 잊지 않고 있어》. 계천이는 정식이에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계천이는 이날 노는데 정신이 팔려 해가 지는 줄 몰랐다. 어두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난 계천이는 학습장을 펴들었다. 그러나 곤해서 자꾸 눈만 감기였다. 그래서 계천이는

《에이 모르겠다! 오늘 하루쯤 일과표를 지키지 않은거야 큰 일 있나!》하고 생각하며 숙제를 채 못 한채 곧 자버렸다.

다음날 첫 산수 시간에 계천이는 남달리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생님은 들어오시자 곧 동무들에게 물었다.

《숙제를 해 온 학생은 손 드시요!》.

동무들은 모두 손을 들었다. 계천이는 숙제를 채 하지도 않고 다른 동무들이 모두 손을 드는 바람에 자기도 손을 넝큼 들었다. 계천이가 손을 든 것을 보신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응 오늘 계천이가 숙제를 해왔구나!》 하고 몹시 칭찬해 주시는 것이였다. 그런데 어쩐지 선생님은 계천이에게 학습장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

계천이는 선생님에게 들키우지 않은 것이 처음엔 다행히 여겨졌다. 그러나 계천이의 마음은 자꾸만 울렁거리였다. 계천이에게 있어 아직 이렇게 자기를 뉘우쳐 보기는 처음이였다.

《나는 선생님과 동무들을

속였구나…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아일가…》. 깊이 깨달은 계천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마음 속에 자기를 뉘우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 × ×

그날 계천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일과표대로 좀 쉬고 곧 굳은 결심을 다지고 책상에 마주 앉았다. 《다시는 선생님과 동무들을 속이지 않을테다!》라고 결심하였다.

바로 그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 왔다.

《허…계천이는 참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였군! 그래 지금 복습을 하는 참이냐?》.

《네……》계천이는 열결에 대답했다.

《좋아, 앉아서 나하구 함께 공부를 하자!.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계천이의 곁에 앉았다.

《선생님……》하고 이때 계천이는 겨우 입을 뗐다.

《응! 무엇이냐?》.

《선생님! 저는 오늘 산수 시간에 선생님과 동무들을 속이였습니다》.

계천이는 오늘 산수 시간에 숙제를 채 못해 오고도 해 왔다고 선생님을 속인 일이며 동무들의 방조와 충고를 때때로 어긴 일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는 꼭 자기 맹세를 꾸준히 지켜 나갈 줄 아는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고 자기 결심을 말하였다.

계천이의 말을 다 듣고 난 선생님은 《음, 알았다. 앞으로는 꼭 일과표를 지켜, 놀 때는 즐겁게 놀고 공부할 때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라!》. 선생님은 차근차근 말씀하시였다.

× × ×

계천이의 학습 성적은 나날이 좋아 갔다. 계천이에게는 일과표를 꼭꼭 실행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것은 계천이가 자기의 결심과 맹세를 어김 없이 지켜 갔기 때문이다. 계천이의 이와 같은 노력은 열매를 맺었다.

2학기가 끝나는 날 학교 정문을 나선 김 정식이네 반 동무들은 류달리 명랑하게 걷고 있었다.

《계천이는 훌륭하게 자기 맹세를 지켰어! 늘 따라 다니던 〈오리〉가 도망치고 말았어!》.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옳아!》. 동무들은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계천이도 빙긋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맹세와 결의를 지킨 자랑이 어리고 있었다.

계천이는 앞으로 일과표대로 더욱 훌륭히 학습해 나갈 결의에 벅차고 있었다.

이 야 기

마린까와 잉크병

예·오르로와

지나가 잠을 깨였을 때 이미 동생은 방 안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시험을 치러 학교에 간 것이였습니다. 어쩐지 집 안은 류달리 조용하였습니다.

《할머니도 어델 가셨나? 내가 괘 늦잠을 잤는가봐》 하고 지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재빨리 사라퐌(로씨야 농촌 부인들이 입는 소매가 안달린 간단복)을 몸에 걸치고 맨발로 부엌에 가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탁자 곁에 우두머니 앉아 계시는 할머니의 씨무룩한 얼굴 표정은 지나를 놀래게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고 지나는 물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앉아 있지 뭘. 앉았을래기 점심 준비도 못하겠다》고 하시며 할머니는 왼 팔을 휘젓는 것이였습니다.

이때 지나는 할머니의 오른손 손'가락이…잉크병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참, 할머니두. 이건 웬일이세요?》, 지나는 놀랜 나머지 손벽을 탁 쳤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돌아 올 때까지 이러구 앉았으라고 마린까가 그러더구나.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잘 못친다고 하는걸 어떻거겠니, 마린까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찌겠니, 내가 이렇게 하구 있어야지》.

이 말을 들은 지나는 큰 소리로 호호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 있던 드루죠크(개의 이름)가 짖어댔습니다.

《넌 그래 뭘 그리 웃니, 응?》.

할머니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지나는 달려가 할머니의 몸을 쥐여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할머니두, 그래 이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할머니?》.

한 손으로 지나를 떠 밀면서 우울해진 할머니는 외면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나……손'가락은

여전히 잉크병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할머니는 자기 일이나 하세요, 제가 손'가락을 꽂고 있을테니, 누가 하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잉크병을 버쩍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손'가락을, 손'가락을 어서 잉크병에 꽂아라!》하는 걱정스런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 왔습니다.

《근심 마세요. 다 잘 될테니까요!》.

할머니는 어쩔지를 몰라 제자리에서 발을 굴으다가 한숨을 후 내쉬고 나서 잉크 묻은 손을 씻으려 갔습니다.

지나는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책상에 마주 앉아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잉크병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 * *

마린까는 뜨락으로 그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구 뛰여 들었습니다. 닭들은 그만 깜짝 놀라서 끄끄댁 끄끄댁 퍌퍌이 달아나고 드루쵸크는 미친듯이 멍멍 짖으면서 마린까의 뒤를 따라 줄달음 쳤습니다.

부엌문을 열자 마린까는

《만세, 만세! 만세!》하고 웨쳤습니다.

마린까는 볼이 빨개 가지고 턱에는 잉크가 시퍼렇게 묻었습니다.

《죄다 풀었어요, 죄다!… 아이 얼마나 기특하게 풀었는지!》마린까는 이렇게 웨치다가 책상 우에 쌓여 있는 삐로그를 보자

《할머니 먹어두 좋아요?》하고 물었습니다.

《먼저 손부터 씻어라》. 마린까의 뒤에서 지나의 목소리가 울리였습니다.

《아이, 언니》하고 마린까는 지난를 돌아다 보며 말하였습니다. 《난 문젤 다 풀었어! 나쟈도 리다도 모두 나와 꼭 같은 답이 나왔어!》.

《이상두 해라, 넌 누구의 답안을 보고 베끼지나 않았니?》. 지나는 정색을 하고 동생을 바라 보았습니다.

《내가?》 마린까는 이 말이 분하였던지 가빠진 숨을 헐떡거리며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가 그렇다는게 아니야》하며 지나는 조용 조용 말을 잇대였습니다.

《글쎄 보렴, 놀라운 일이 아니냐. 할머니가 잉크병에 손'가락을 꽂고 있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문젤 다 풀었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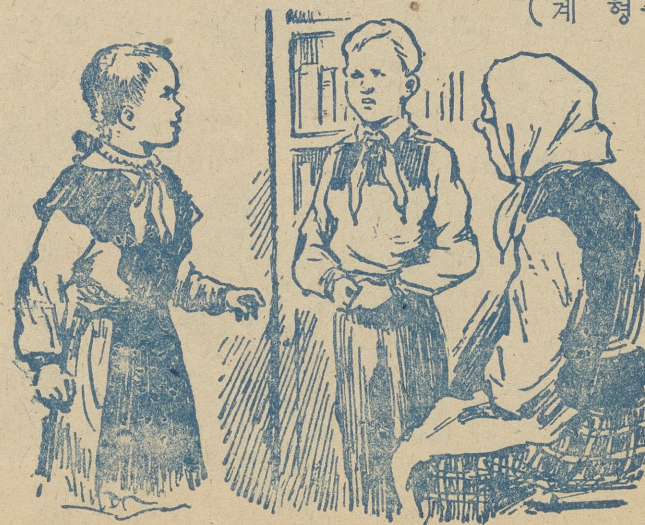
《지나야, 넌 날더러 그러구 있겠다고 약속하고두…》할머니는 어이가 없다는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줄 생각은 털끝 만치도 없었어요》. 지나는 넌즛이 동생 앞에 깨긋한 손'가락을 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말은 일이 다 잘 되리라는 약속이였지요…… 넌 정말 문제를 다 풀었니?》하고 지나는 동생에게 말을 건니였습니다.

《정말》. 마린까는 수집어하며 이렇게 대'구하였습니다.

《요 다음번엔 어디 동전을 양말에 넣고 신어 보렴. 그렇게 하면 하는 일이 모두 잘 된다는데……네가 그런 미신을 믿어서야 되겠니, 넌 삐오네르가 아니냐……》.

지나는 제일 맛이 있어 보이는 불깃불깃한 삐로그를 골라서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와 마린까는 말이 없었습니다.

(계 형수 역)

나는 《어린 려행가》 입니다.

나는 하늘로 날아 다닐 수도 있으며 땅 속으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망원경과 청음기를 가지고 있고 카메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원경을 가지고는 몇 만리라도 내다 볼 수 있으며 또 만원경에는 먼 옛날 일도 비쳐 볼 수 있습니다. 청음기로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옛날에 벌어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려행가》인 나는 우리 조국의 방방 곡곡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지난 날과 오늘, 그리고 앞날에 대하여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자랑으로 합니다.

나는 잡지 《소년단》에서 소년단원 동무들과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는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사랑한 빛나는 전통을 찾아 보기 위하여 평양 상공을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한창 복구 건설되는 민주 수도의 모습을 하늘에서 굽어 보는 것은 참으로 굉장하였습니다.

자랑 높은 이 도시가 옛날에는 고구려의 서울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그 옛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구려의 서울을 볼 수 있도록 망원경의 렌즈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려의 서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여 내가 보고 싶던 1,343 년 전의 평양이 내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란봉에 있는 사허정(을밀대)에 나의 눈은 가 멎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존경하며 자랑하는 애국자들의 한 분이신 을지 문덕 장군은 사허정에서 고구려에 두번째 쳐들어 온 수나라 침략군을 막아내는 총사령관으로서 친히 군대를 한창 지휘하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기쁨에 못이겨 숨을 죽이고 오래'동안 우러러 보았습니다.

을지 문덕 장군은 밤낮으로 사허정에서 륙지로 쳐들어 오는 적군과 바다로 해서 패수 (대동강)로 쳐들어 오는 적 해군을 쳐부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며 적은 군대로써 적군을 몽땅 쳐부실 수 있도록 군대를 배치하고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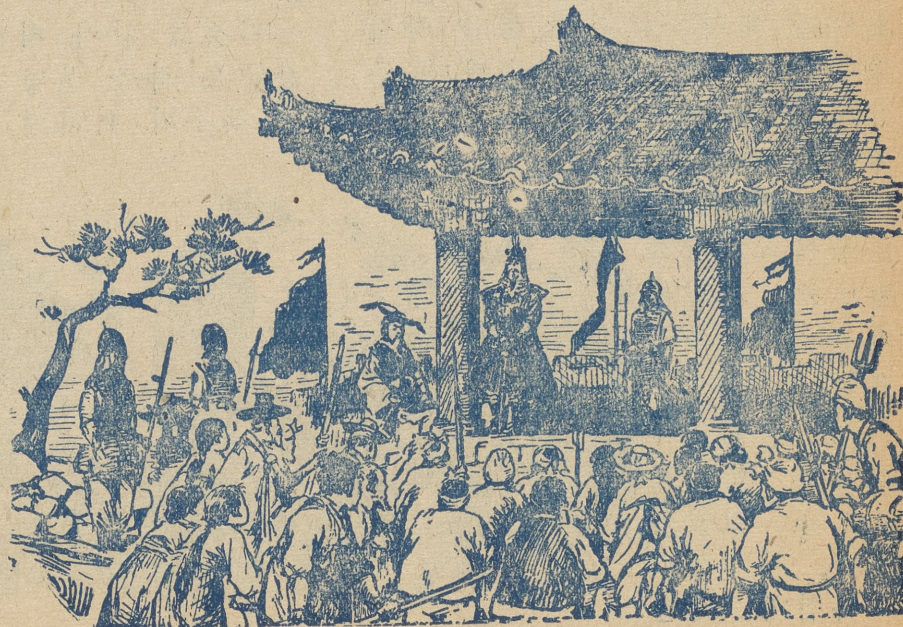
이때 을지 문덕 장군이 계시는 사허정으로 인민들이 밀물처럼 모여 드는것을 보았습니다.

《장군님! 이번에 장군님께서 저희들의 상납 (나라에 바치는 세물) 을 덜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업수이 여기지 못하도록 법을 써주시니 정말이지 저희들은 기쁘오이다. 산간에 사는 백성들이라 많이는 못가져 왔사오나 숯 2백섬과 쌀 50석을 나라에 소용될가 하여 가져 왔사오니 받아 주사이다. 그리고 제각기 한달 먹을 쌀을 따로 가져 왔사오니 무슨 일에든 써 주사이다!》.

인민들의 불타는 애국심에 감격한 을지 문덕 장군은《어찌 많고 적은 것을 말하리오! 적다 하되 큰 정성에서 바치는 물건이니 나라의 큰 힘이 될 것이요!》하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장군님! 저희들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겨 모두 쇠스랑, 낫, 도끼를 무기로 만들어 가져 왔자오니 군졸로 써 주시여 원쑤와 싸우게 해 주사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힘찬 탄원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민들이 적군을 싸워 이길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보시요! 이자 어떤 녀인이 와서 활시위 (활줄) 를 꼬으라고 머리칼을 잘라 오고 활촉을 만들라고 하나 밖에 없는 수저를 가져 왔소! 이렇게 고구려의 온 백성이 외적을 물리치고자 한데 뭉쳐 일어선다면 수백만 적병이라 한들 무엇이 무서울 것이며 어찌 이 나라의 앞날이 밝지 않으리요!》 하고 을지 문덕 장군은 머리칼과 은 수저를

내보이며 감격하시였습니다.

청음기로 들리는 이 말들을 들을 때 나의 가슴은 뭉클해지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을지 문덕 장군이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알고 싶어 망원경 렌즈를 또 조금 돌렸습니다.

을지 문덕 장군은 가난한 농사'집에 태여났습니다. 장군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농사짓는 틈을 타서 짬짬이 석다산의 돌굴 속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으며 한편 마이산에서 활 쏘기 칼 쓰기 말달리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 오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용감히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장군은 해마다 3월에 왕 앞에서 열리군 하는 수렵 대회(무사들의 무술을 시험하는 행사)에서 으뜸을 차지하여 무인으로 뽑히였습니다. 무인으로 된 장군은 적들의 침략을 막아내는 싸움에서 특히 수나라의 군대가 첫번째 쳐들어 왔을 때에 공을 세워 고구려 군대와 인민들의 신망을 한몸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군은 침략군을 막아 내는 총사령관으로서 수 나라 임금 양제가 직접 113만의 군대를 200만이라고 자랑하면서 고구려에 쳐들어 온 적군을 쳐부시는 어려운 일을 두 어깨에 질머지게 되였습니다. 그때 을지 문덕 장군은 35세의 젊은 장군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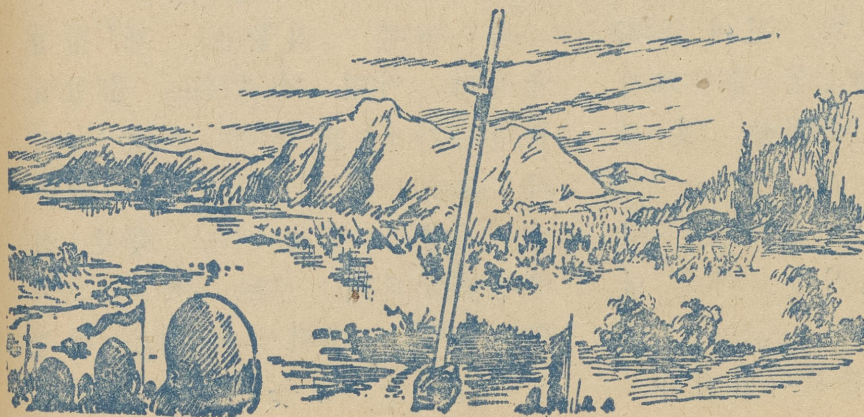
을지 문덕 장군이 지휘하는 고구려 군대는 륙지로 쳐들어 온 수 나라 군대를 료하에서 용감하게 막아 내였습니다.

수 나라 임금 양제는 자기 군대가 오랜 행군에서 피곤해지고 싸움에서 더욱 피로해진 것을 보고 싸움을 빨리 끝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서북 쪽의 중요한 성인 료동성을 둘러싸는 한편 강한 군대 수 10만을 딴데로 돌려 평양성을 떨구어 빨리 이겨 보려고 꿈꾸었습니다.

이것을 알아 차린 을지 문덕 장군은 적을 몽땅 쳐부실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압록수(압록강)를 건너려는 적군 속으로 화의하자는 구실을 걸고 찾아갔습니다.

자기 나라에 쳐들어 오는 수 10만의 적군 속에 총사령관의 몸으로 혼자서 유유히 들어가 담판을 하는 한편 적의 형편을 살핀다는 이것은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이것은 곧 장군의 용감성과 대담성, 넓고 깊은 지혜,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는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장군의 애국심을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적군의 사정을 손'금처럼 꿰뚫어낸 을지 문덕 장군은 훌륭한 전술을 썼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후퇴한 곳에 쳐들어 온 적군은 인민들의 그림자를 영 볼 수 없었고 쌀알 구경도 못하게 되였습니다. 적들은 평양성 가까이까지 밀려들었으나 피곤할대로 피곤하고 굶주릴대로 굶주려 허덕거렸습니다.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을지 문덕 장군은 드디여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면바로 쳐나가기도 하고 벼락 같이 옆구리에서 갈기기도 하여 적들은 폭풍에 갈 쓰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적군은 쫓기여 살수(청천강)를 반쯤 건너 갔을 때였습니다. 숨어 있던 고구려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드려댔습니다. 적은 대부분이 강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군대는 적군에게 숨 돌릴 사이를 주지 않고 계속 용감하게 쳐나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옛 선조들의 빛나는 애국 전통은 지금 조선 인민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빛나는 애국 전통이 가슴 깊이 흐르고 있는 영웅적 인민군대는 의로운 중국 인민 지원군과 함께 지난 전쟁 시기에 이 유서 깊은 청천강반에서 수만의 미국 침략군과 리승만 괴뢰군들을 포위 섬멸하고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 ※

나는 려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봄을 어떻게 맞이할가요?

강원도 철원 제2 중학교 식물 교원

김 흥 룡

머지 않아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따뜻한 바람은 봄을 실어 올 것입니다.

겨울 동안 추위에 떨던 벌거숭이 나무 가지들과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각색 화초들도 오래지 않아 싹 트게 될 것이지요.

소년단원 동무들! 나무와 화초들이 싹 트기 전에 우리들은 봄을 더욱 잘 맞이하기 위하여 봄맞이 준비를 잘 갖추어 놓읍시다.

우리들의 봄맞이 준비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교재원 설계로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교재원을 어떻게 꾸밀가요?

교재원은 무엇보다 학교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식물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꼭 알맞는 자리를 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성질과 실험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식물들을 여러 가지로 재미 있게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식물은 해'빛을 즐기며 어떤 식물은 응달을 즐기는가? 또 어떤 식물이 키가 크고 어떤 식물이 키가 낮은가? 그리고 어느 꽃은 언제부터 피며 무슨 색의 꽃이 피는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등을 알아 내고 꽃

을 심는데 주의를 돌립시다. 례를 들면 해'빛이 들고 바람이 잘 쏘이는 곳을 즐기는 해바라기는 교재원 주위에, 응달을 싫어하는 백일홍은 양지바른 쪽에, 7월부터 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 꽃피는 코스모스는 교재원 복판에 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방울꽃은 약간 습한 응달을 좋아하므로 관목들 아래에 심도록 하고 덩굴이 뻗어 올라가는 라팔꽃과 오이 호박 같은 것들은 휴계소의 주위에 심어 놓으면 여름철에 뜨거운 해'빛을 가리워 줄 것입니다.

자예의 주두에 화분을 옮기는것

꽃 에서 웅예를 잘라내는것

수분후에 꽃을 가제 주머니속에 넣어둔다

또한 교재원의 한 편에는 사과 배 추리 복숭아 앵도 대추 살구 등의 과수들을 심어 놓고 맛 좋은 과수 열매들을 따 낼 인공 수분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춥시다.

인공 수분의 실험을 위해서는 미리 가제 주머니 핀셋트 새털 같은 것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제 주머니는 꽃망울이 피기 전에 곤충들이 화분을 나르지 못하도록 꽃망울에 씌워 놓으며 핀셋트는 웅예를 잘라 내는데 사용되며 새털은 사람의 손으로 화분을 자예의 주두에 수분시킬 때에 사용합니다.

훌륭한 교재원을 꾸미기 위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교재원 설계도의 모집을 해 보십시요. 그 속에서 많은 소년단원들의 의견과 우수한 설계를 골라 내는 것은 얼마나 흥미 있는 일일가요.

교재원을 설계한 다음에는 교재원에 심을 각종 꽃씨들과 나무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무들은 학교 주위에 분포되고 있는 아름다운 교목 관목 초본 식물들의 종자와 뿌리들을 수집하는 한편 아름다

운 꽃들을 더 많이 심기 위하여 분단들과 반에서는 소년단원들의 가정에 있는 백일홍 분꽃 백합꽃 집나리 채송화 라팔꽃 봉선화 붓꽃 등의 꽃씨들을 있는대로 많이 모으는 사업을 진행합시다.

그리고 모은 꽃씨들은 꼭 습기가 들지 않도록 병에 넣어 잘 건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른 봄에 삽목할 때에 쓸 모래통과 칼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통은 가로 50cm, 세로 20cm, 높이 15cm 정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래통에는 포도 무궁화 배 사과 장미꽃들과 향나무의 1년~2년생 가지들을 골라 삽목하였다가 교재원에 옮겨 심어야 합니다.

삽목할 때에는 뿌리가 잘 뻗을 수 있게 밑부분을 약간 쪼개 벌려 놓고 진흙으로 바람이 들어 못가게 싸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재원에 심은 식물들의 이름을 써 붙일 표말을 준비합시다.

표말에는 식물의 종명 과명 학명과 용도와 심은 날'자들을 적읍시다.

끝을 쪼개여 모래알을 넣는다

진흙덩어리

모래통

그리고 교실 앞 양지바른 들창 밑에는 가지와 일년감, 오이와 마눌 등의 온상 재배도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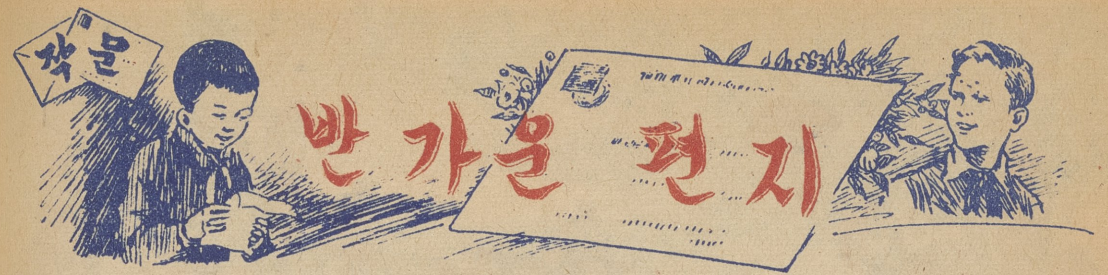
유리창 밑에서 따뜻한 봄'별을 받아 검은 흙을 뚫고 나오는 식물들의 발아와 자라는 모습들을 살펴 보는 일은 퍽 재미 날 것입니다.

또한 교재원에서 동무들은 밀 보리 감자 등의 재배 방법들을 실험하도록 준비하는 사업을 조직합시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우리들의 학교와 거리, 마을들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한 식수 준비와 함께 학교 주변에 감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등의 동산들을 만들 준비도 갖추어 봅시다.

이외에도 새들을 연구하기 위한 새통 만들기 및 동물을 기르기 위한 통 준비 등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봄맞이 준비를 잘 하기 위하여 대 및 분단들에서는 《봄맞이 준비를 어떻게 할가요?》의 제목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세밀한 계획과 일들을 분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새해의 봄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함흥 제1 인민 학교 4의 1
김 영 작 지음

오늘 나는 반가운 편지 한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쏘련 삐오네르인 미샤 동무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미샤 동무가 나를 어떻게 알고 편지를 보냈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곧 알 수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들의 편지가 모쓰크바 삐오네르들에게 전달되였거든요. 아마 그때 나의 편지가 미샤 동무의 손에 간 모양이예요.

나는 미샤 동무를 본 일은 없어도 편지를 읽고 그의 얼굴을 생각해 낼 수 있어요. 아마 동글하고 통통한 얼굴에 웃음이 피는 그런 얼굴일거야요

꼭 그런 동무라고 생각해요.

미샤 동무는 나를 아주 무서운 전쟁 속에서도 굴함 없이 잘 싸워 이긴 조선의 동무라고 칭찬했지요. 그러면서 훌륭하게 공부를 하여 이담에 꼭 모쓰크바로 류학을 오라고까지 말했어요. 얼마나 친절한 동무인지 알 수 있어요.

반가운 미샤 동무의 편지를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보여드렸더니 몹시 기뻐하였답니다.

나는 곧 《참다운 벗 미샤 동무》—하고 회답을 썼습니다.

원숭이 다리 우에서

끄르네이 추꼽쓰끼

언젠가 착한 의사가 앓고 있는 원숭이들을 찾아 머나먼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악한 강도놈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퍽 용감하게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붙잡히자 곧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놈들아! 빨리 의사를 따라 잡아라!
그놈을 당장 여기로 잡아 오너라!
강도놈들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강도놈들은 의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벌써 같이 온 짐승들과 함께 원숭이들이 있는 곳에 거의 닿았습니다.

앓는 원숭이들은 의사를 멀리 바라보며 기뻐 손벽을 쳤지요.

그러나 갑자기 산림 속에서 강도들이 뒤따라 달려 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놈들은 웨쳤습니다.

의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 앞에 큰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은 넓었지요. 헤염쳐 건널수도 없었답니다.

만약 이 강에 다리가 있었다면 의사는 다리를 건너 곧 원숭이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불상하게 되였구나!

저 강을 어떻게 건너나? 강도놈들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돼지가 말했습니다.

이때 한마리의 원숭이가 소리쳤습니다.
—다리! 다리! 다리를 만들자 빨리!
일분 내에! 다리를 만들자! 다리를!
의사는 사방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에게는 쇠뭉치도 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다리를 만들가요?
원숭이들은 쇠나 돌로 다리를 만든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몸으로 다리를 만들었답니다. 우선 한마리의 원숭이가 나무를 붙잡고 다른 원숭이들은 서로 손과 다리와 꼬리들을 맞잡았습니다.

모든 원숭이들은 강 사이를 길게 련결시켰습니다.
—자! 당신을 위해 다리를 놓았으니 어서 건너시요!—하고 그들은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같이 온 짐승들과 함께 원숭이들의 머리와 등을 타고 건넜습니다.

산 원숭이 몸으로 된 다리를 건너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의사는 미끄러져 물 속에 떨어질가바 두러웠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들이 서로 꽉 붙잡았기 때문에 무사히 강을 건너왔습니다. 강도놈들도 역시 뒤를 따라 원숭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놈들이 다리 한 복판에 왔을때 한마리의 원숭이가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다리는 헝크러졌고 강도놈들은 강물 속에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만세! 원숭이들은 웨쳤습니다.
—만세! 의사는 구원되였습니다.
만세! 강도놈들은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만세!

옛이야기

용감한 청년 윤 길수와 천 순녀

한 옛날 윤 길수라는 용감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잃은 그는 부자집에 머슴으로 들어 가야만 하였습니다.

집 주인과 그의 마누라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윤 길수에게만 시켰답니다.

어느 날 윤 길수는 나무를 하러 깊은 산 속으로 들어 갔지요.

그는 두 단의 나무를 힘껏 해 지고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험악한 산길은 몹시도 사나웠답니다 곤한 윤 길수는 잠간 쉬여 가려고 앉았지요. 그런데 어느듯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그는 누가 깨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번쩍 떠 보니 앞에는 웬 로인이 서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내 땅에 들어 왔느냐 ? 넌 죽고 싶으냐 살고싶으 냐?—라고 로인은 물었습니다.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 젊었어요. 나의 앞길은 넓습니다. —라고 윤 길수는 대답하였답니다.

로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참 잘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과는 달라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 넌 대답을 잘 한데 대하여 무슨 상을 주기를 원하느냐 ? 네가 지고 있는 나무만한 황금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장수 같은 힘을 원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정말 롱담이 아니라면 나무를 새털과 같이 가볍게 들 수 있는 힘만을 내게 주십시요. 장수 같은 힘을 가지고 나는 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

—좋다. 그럼 빨리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하자 로인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윤 길수는 나무'단을 들었습니다.

이상도 하지요 . 나무'단은 아주 가벼워졌답니다. 윤 길수는 자기의 힘이 장수 같이 세졌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는 산으로부터 물'살이 빠른 푸른 강가로 막 달아 내려 왔습니다. 강에는 높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윤 길수는 다리 우에서 눈과 같이 흰 명주 옷을 입고 조그마한 손으로 길게 드리운 댕기를 풀고 있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두 빰에는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너는 왜 우느냐?— 윤 길수는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동네 로인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에 의해서 나를 범에게 례물로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겠어요!—

처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 흐느껴 울었습니다.

—네 이름은 뭐냐?— 고, 윤 길수는 물었습니다.

—천 순녀야요—

윤 길수는 —강물에 빠지지 말라, 천 순녀야. 나의 뒤를 따라 오너라— 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그의 뒤를 따라 갔습니다. 그들은 동네로 다시 들어 갔지요. 로인들은 처녀를 보자 낯을 찡그리였습니다.

—너는 왜 돌아 왔느냐? 네게는 혼자 죽을만한 용감성이 없느냐? 겁 많은 처녀야 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느냐? 수천년 동안 우리 동네의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은 범에게 례물로 되였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에 윤 길수가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훌륭한 처녀들을 범에게 바칩니다. 왜 바칩니까?

당신들은 천 순녀를 겁많은 처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당신들 자신이 겁쟁이들입니다.

천 순녀는 살기를 원합니다. 범 아가리에 들어 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연약한 일이 어데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죽는 것은 영예롭다— 고 로인들은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과 칼을 잡고 우리들은 처녀들을 구원하며 우리 전체 행복을 위하여 범을 죽입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약 범과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죽음이 영예롭습니다. —

깊은 생 각에 잠긴 로인들은 수염을 어루 만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냥'군들은 당황하여 쑤근덕 거렸습니다.

그들을 바라 보면서 윤 길수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

—너는 아직 젊다— 고 로인들은 말하였습니다.

—물론 젊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활에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나에게는 싸울만한 힘이 있답니다.—

윤 길수는 창과 칼을 가지고 제일 높은 산 준령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사냥군들도 윤 길수와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몇사람만이 남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집으로 돌아 갔답니다. 윤 길수는 혼자서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험한 산정에 올라서자 사방엔 파란 꽃이 피여 있고 못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못가에는 머리가 희고 큰 어금이를 가진 로인 한분이 앉아서 머리를 흔들거리고 있었답니다.

청년은 로인에게로 가서 범이 어데 있는가를 물어 보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는 길가에 핀 꽃을 보자 문뜩 생각하였지요 —이 꽃을 꺾어다 천 순녀에게 선물로 주자— 그래서 그 꽃을 꺾으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꽃 옆에 앉아 있던 한 마리의 토끼가 살짝 앞에 나서며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내 꽃을 꺾지 말라. 그 대신 나는 네게 좋은 것을말해 주마—

—오냐 말해 다오— 하고 청년은 말했지요.

—못가에 앉아 있는 것은 로인이 아니라 범이 몸치장을 바꾸고 앉아서 머리를 흔드는 것이야…—

청년은 곧 창을 들고 범을 향하여 달려 들었습니다.

이때 별안간 못은 높뛰는 파도를 이루고 비바람이 세차게 휘몰아 치고 으르렁 으르렁 우뢰가 울며 번개가 번쩍였지요. 이렇게 윤 길수는 범과 싸우기 시작하였답니다. 싸움은 오래 계속되였지요. 범은 마침내 기운이 없어져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적을 용서할수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범을 칼로 내려 쳤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 범을 태워버리고 재를 바람에 날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청년은 범을 없애버리고 마을을 구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윤 길수는 토끼를 만났습니다.

—범을 죽인 선물로 네게 이 꽃을 준다! 가져 가라!— 고 토끼는 말하였습니다.

윤 길수는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온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천 순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이다. 너는 그 녀자를 구원했다. 그 녀자는 너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동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였습니다.

청년은 천 순녀에게 귀중한 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삶의 꽃을 주었습니다. 참 고마워요— 라고 천 순녀는 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이후부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끝

처음으로 크레온화를 그리는 동무들에게

선 우 담

크레온으로 그린 그림은 고무로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그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연필로 가볍게 그리려고 하는 물체의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색을 잘 보고 그 색과 같은 색의 크레온을 골라서 색칠하여야 합니다.

크레온을 쓸 때는 잡는 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크레온은 퍽 만문하고 부러지기 쉬우므로 언제나 가볍게 잡아야 합니다. 꽉 잡고 힘을 주면 부러지거나 꾸부러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우므로 문문하게 되기 쉬우니 서늘한데 건사해야 하며 잡는 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줄을 긋거나 사람의 코, 입, 눈과 같은 세밀한 곳을 그릴 때는 글 쓸 때에 연필을 잡듯이 크레온을 잡고 뾰족한 끝으로 정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러나 좀 넓은 면을 칠할 때

는 그림과 같이 크레온을 뉘여서 잡고 크레온을 굴리면서 칠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크레온 끝은 항상 뾰족하게 닳도록 사용하십시요.

크레온 잡는 법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색칠은 언제나 그리는 물체의 생김에 따라서 크레온을 어느 쪽으로 그어야 할가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례를 들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땅처럼 평평한데는 크레온을 가로(수평)나무는 내려(수직)또는 엳(사선)으로 즉 나무가 생긴대로, 집의 담벽과 같은 곳은 내려(수직)긋고 낟가리와 같이 여러 선과 점으로 얽힌 곳은 그 모양에 따라서 색칠하여야 합니다.

즉 물체가 생긴대로 둥근 것은 둥글게, 가로 생긴 것은 가로, 세로 생긴 것은 세로 각각 그 모양에 따라서 색칠하여야 합니다.

같은 색이라도 가로 그은 것과 세로 그은 것은 보는 사람에게 주는 감각을 다르게 합니다.

이것은 비단 크레온화 뿐만 아니라 연필화 수채화도 모두 그러합니다.

다음은 두가지 이상의 색을 섞어서 요구되는 색을 만들 때의 문제입니다.

크레온은 이것이 퍽 힘듭니다.

가령 땅 빛이 갈색과 누른색을 섞은 색으로 보일 때는 그런 색을 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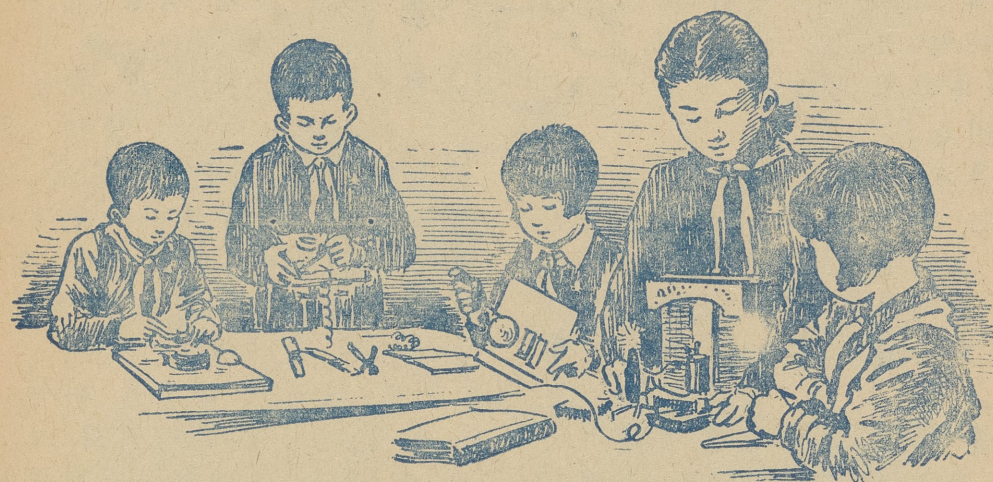
그럴 때는 그 색들 가운데서 제일 강한 색이 갈색이면 그 색을 먼저 좀 연하게 칠하고 그 우에다 누른색을 덧칠하되 자연의 땅 색을 잘 보면서 그와 같이 되도록 색을 잘 칠하여야 합니다.

이런 때에 크레온을 너무 짙으게 칠하면 미끄러워서 그 우에 딴 색을 칠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 때엔 칼날을 세워가지고 종이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크레온의 두꺼운 층을 긁어 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그린 그림의 색을 긁어 낼 때는 반드시 긁어 내는 칼의 방향은 색칠한 크레온의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로 칠한 것은 가로 긁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긁어낸 곳에 다시 필요한 크레온으로 그 우에 덧칠을 하면 됩니다.

어린과학자들

자 연' 과 모 임

우리 제1 분단에는 어린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자연 과목에서 배운 것을 더 깊게 알기 위하여 직접 실험을 해 보군 합니다.

얼마전 《공기는 자리를 차지한다》의 실험은 퍽 재미 났습니다.

이 실험은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분단의 재간 있는 어린 과학자로 재현 동무가 동무들 앞에서 실험을 해 보였습니다.

첫째 실험은 깔따기의 관을 손'가락으로 막고 물을 넣은 유리통에 그것을 거꾸로 조심히 넣었습니다.

그러자 깔따기 속에는 물이 들어 가지를 않고 유리통 우로 물이 흘러 넘었습니다.

동무들은 깔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둘째 실험은, 구멍이 뚫어진 고무 마개로 유리병을 막은 다음 그 구멍에 깔따기를 꽂아 놓고 물을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깔따기에 찬 물은 조금도 유리병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병 속에도 이미 공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실험은 계속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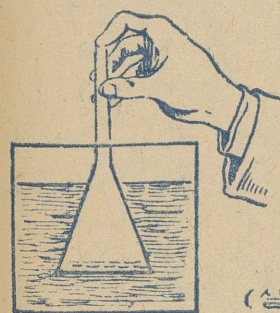
세째 실험에서는, 물 우에 뜬 조그마한 둥근 나무판에 사탕 덩어리를 놓고 나무판을 컾으로 덮은 후 조심히 물 속에 눌러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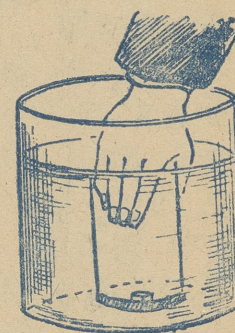
사탕이 놓인 나무판은 물 그릇 밑바닥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나무판을 도로 꺼냈을 때 사탕엔 조금도 물이 묻지 않고 마른채로 있었습니다. 나무판을 덮은 컾 안에 물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공기도 다른 물체들과 같이 일정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하여 똑똑히 알 수 있었고 자연과에서 배운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하기 위한 실험 실습을 더 많이 하려고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원산 제6 인민 학교 대
리 윤 희

(실험1)

(실험2)

(실험3)

우리 분단의 과학 공부

어느 날 자연과 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큰 쇠못에 피복 동선(고이루)을 같은 한 방향으로 감아 놓고 그 량쪽 끝으로부터 전류를 통과시켜 전자석을 만드시였습니다.

이 전자석은 작은 바늘, 철필촉 같은 것을 가까이 갖다 대자마자 척척 고어다 붙이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끄기만 하면 금방 붙어 있던 쇠끝들은 곧 떨어지군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전령(베루)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분단에서는 전령을 만들 것을 의논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 널판자와 자전차에 달렸던 종과 자전차의 짐틀 그리고 강쇠줄과 도선들이 마련되였습니다.

방과후가 되면 매일과 같이 어린 과학자들은 과학실에 모여 전령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널판자 우에 자전차의 짐틀로 꾸부려 만든 전자석과 종을 달아 놓았고 전자석이 달린 곁에 못을 꽂고 거기에 강쇠줄의 한쪽을 감은 후 그 밑에 있는 령(종을 때리는 것)이 종에 닿도록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르개 단추에 달린 도선 두 줄을 각각 전자석의 량쪽 고이루에 이어 놓고 전류를 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찌르릉》 하고 곧 종이 울렸습니다. 훌륭한 전령이 만들어진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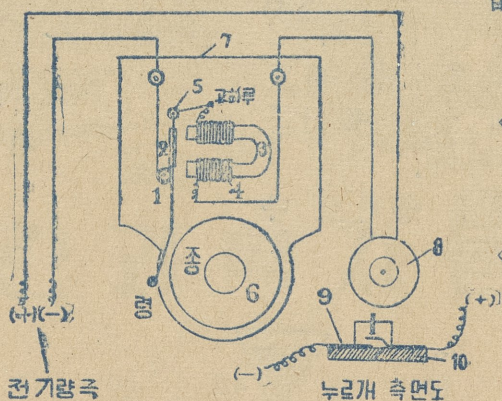
우리들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만든 이 전령은 직원실에서 외따로 500m나 떨어져 있는 5학년과 4학년 교실 앞에 달아 놓고 시간을 알리는 신호로 리용되고 있습니다.

전령도해

전기량극

누르개 측면도

도해 설명

《1》은 못을 꽂고 전기 (—)극과 맞닿 있는 곳.

《2》는 종대인데 전자석에 잘 끌리우도록 하기 위하여 종대에 합석을 감아 붙인 것.

《3》은 전자석인데 자전차의 짐틀을 했던 연철로 꾸부려 만든 것.

《4》는 피복선을 같은 방향으로 감은 고이루이다.

《5》는 종대를 이어 놓기 위한 못

《6》은 종인데 자전차의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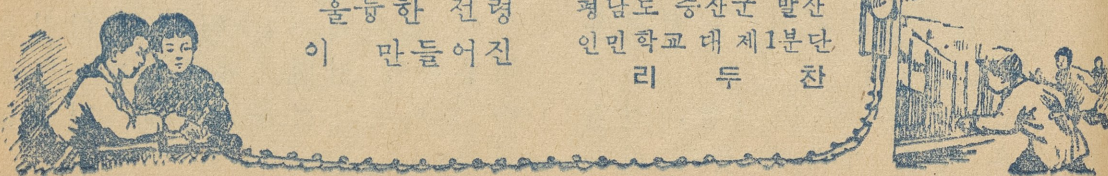
《7》은 널판자.

《8》은 누루개 단추이다.

《9》는 합석판이다.

《10》은 널판자.

평남도 증산군 발산 인민학교 대 제1분단
리 두 찬

재미 있는 유희

둘 러 묶 기

이 놀음은 많은 소년들이 한꺼번에 놀 수 있는 놀음입니다.

놀음의 방법과 규칙

놀음에 참가할 동무들은 처음 두 패로 갈라 섭니다.

두 편은 약 50~60m의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 향해 섭니다.

이때 심판관은 호각으로 신호를 합니다.

첫째 신호가 나면 자기편 끼리 손을 서로 맞잡고 일렬로 진격할 준비를 갖춥니다.

둘째 신호가 나면 《소년단 행진곡》 또는 《진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상대편을 묶으려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이때 《가》 편과 《나》 편 량끝의 동무들은 각각 자기 편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세째 신호가 나면 량편 대렬은 《왓—》 고함을 치며 서로 상대편 동무들을 둘러 묶기 시작합니다.

서로 둘려 묶으려다가 자기 대렬에서 떨어지는 수가 흔히 있게 됩니다. 만일 대렬에서 1~3명이 떨어지면 그 동무들은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심판관의 지시에 의하여). 4명 이상이 대렬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자기 편을 따라가 다시 대렬에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렬에 가서 련결되기 전에 상대편에게 묶이우면 그 동무들은 그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먼저 더 많은 동무들을 둘러 묶는 편이 이깁니다.

네째 신호가 나면 유희를 끝내고 먼저 섰던 자기 자리에 와 정렬하게 됩니다. 이때 심판관은 승부를 알려 줍니다.

강원도 금강군 룡암 인민 학교
소년단 지도원 리 상 련

간단한 모형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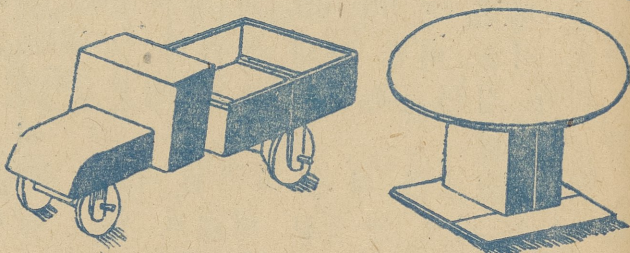
소년단원 동무들! 여러 가지 종이 조박, 마분지, 성냥갑, 널판자, 양철 조박지, 통조림통, 기계 부속품 등 못쓰게 된 많은 페물들을 널리 리용하여 있는 손 재간으로 간단한 모형들을 만들어 봅시다.

특히 성냥갑은 나어린 동무들이 손 쉽게 여러가지 간단한 모형을 만드는 데 널리 리용될 수 있습니다.

성냥갑 겉에 몇가지 종이를 붙이면 이것은 여러가지 모형과 놀음'감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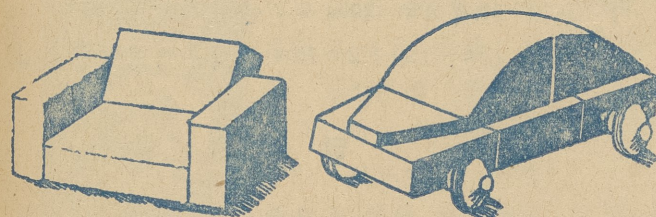
성냥갑의 모세기를 곱게 짤라 내면 그림과 같이 멋진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냥갑을 리용하여 수십종의 모형과 놀음'감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동무들도 성냥갑을 가지고 여러가지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여 보시요.

동무들은 이렇게 만든 놀음'감을 어린 동생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성냥갑으로 만든 몇가지의 간단한 모형만 보여드립니다.

둥근 탁상은 두개의 성냥갑과 절반을 쪼갠 성냥갑과 한장의 마분지로 만든 것입니다.

긴 의자를 만드는 데는 세개의 성냥갑과 두개의 쪼갠 성냥갑이 듭니다.

화물 자동차와 자동차도 이러한 성냥갑들을 종이로 붙여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바퀴는 못쓰게 된 산판 알이나 얇은 널판자를 짤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형에 다시 종이를 바르고 곱게 색칠하십시요. 그러면 참 훌륭한 놀음'감들이 되지요.

동무들은 이 밖에도 성냥갑을 가지고 기차, 뜨락또르 책장 등 기타 많은 모형들과 놀음'감들을 만들어 보십시요.

그림 외에 다른 모형들과 놀음'감들을 만든 동무들은 자기가 만든 것을 그림으로 그려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편집부에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 ☆ ☆

누가 더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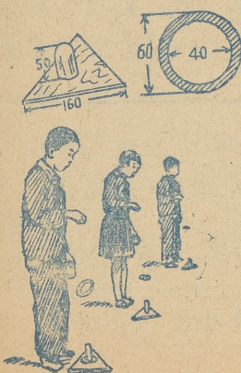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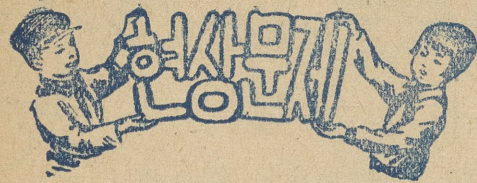
투터운 베니야 판자나 보통 널판자로 만든 동그란 받치개의 (3각형 혹 4각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 높이 50~60mm. 직경 30~35mm의 곡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곡지의 직경보다 내경이 8~10mm더 큰 동그라미를 세개 만듭니다. 이런것을 여러조 만듭니다.

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곡지를 발 앞에 세운 다음 유희 참가자들은 자기 허리 높이에 동그라미를 들고 있다가 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밑에 떨어트려서 동그라미를 곡지에 맞춰 넣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세개의 동그라미를 맞춰 넣는 동무가 승리입니다.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곡지

베니야 판자로 정방 3각형을 잘라 냅니다. 3각형 중앙에 직경120mm의 원을 그려고 그 원 우에 곡지를 세개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니야 판자로 내경 150mm의 동그라미를 아홉개 만듭니다 다 동그라미를 세개씩 나누어서 같은 색을 칠합니다.

《세 곡지》는 셋이서 놉니다. 세 동무는 제각기 같은 색의 동그라미를 세개씩 가집니다. 일정한 거리를 정하고 (약 2~3보) 한 동무씩 차례 차례 동그라미를 던집니다.

세 곡지에 다 넣으면 3점을 받습니다. 두 곡지에 넣으면 2점이고 한 곡지에 넣으면 1점입니다. 동그라미 세개를 던져서 점수를 더 많이 받은 동무가 승리입니다.

(1)나는 바다에서 태여나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나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많은 고기들은 나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도망 칩니다.

나는 나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처음 새끼를 낳았습니다. 나는 무엇이겠어요?

(2)나는 봄날에 물 속에서 태여나 물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철엔 때때로 땅 우에 올라 와서 한참씩 놀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가을이 오고 써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나는 물 속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은 땅 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 않아 나는 다시 땅 속에서 나와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겠어요?

☆

12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1. (5—5)×5+5=5
2. 7+(5—1)+1=12(세)…영희 나이
   12세×3=36세……아버지의 나이
   (36—12)÷2=12…12년후이면절반이됨

당선자

자강도 자성군 자성 인민 학교 김성자
함남도 북청군 청흥 인민 학교 김춘희
평남도 강동군 하단 인민 학교 리보부
함북도 무산군 창렬 인민 학교 김혜선
강원도 통천군 대곡 인민 학교 리현근
평양시 제4 인민 학교 조중현
강원도 원산시 제10 인민 학교 김옥련
평북도 신의주 제5 인민 학교 박승남
평남도 온천군 보림 인민 학교 리경자
황남도 안악군 류설 인민 학교 황경택
함북도 경흥군송학 제1 인민 학교 김경숙
평북도 녕변군 영화 인민 학교 오영남
자강도 시중군 풍룡 인민 학교 최대복
황남도 송화군 룡호 인민 학교 김영길

1955년 2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5년 2월 20일 발행 《소년단》 1955년 제2호 (총65호)
발행소 민주 청년사. 주필 김 주 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013 값 40 원 총 배포처 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새로 나온 책들

《가시 덤불》 박우석 지음

이 책에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우리 조국 남반부 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이 그려져 있습니다.

배움의 길을 잃고 거리에서 헤매다가 빨찌산에서 싸우는 나어린 소년 《수영》을 통하여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에 둥이를 틀고 있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에 대한 증오를 더욱 품게하며 남반부 인민들의 억센 애국적 투쟁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 책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조선 어린이들도 우리들과 함께 행복하게 배우며 뛰놀 수 있게 조국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더욱 다지게 하여 줍니다.

소년 소설집 **《먼곳의 동무들》**

이 책에는 강 효순 선생이 쓰신 《먼곳의 동무들》과 리 진화 선생이 쓰신 《왕텐 아저씨》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먼곳의 동무들》에는 덕호라는 소년이 체코슬로바키야 대사관원으로 부임하여 가는 아버지를 따라 모쓰크바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야깁니다. 이 소설은 덕호, 빠블렌꼬, 바라쇼브 세동무의 아름다운 친선의 감정을 보여 줍니다.

《왕텐 아저씨》에서는 중국 인민 지원군 왕텐 아저씨와 조선 소녀 봉숙이와 그의 동무들 간에 맺어진 조 중 친선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토막을 소개하여 줍니다.

《공화국 2중 영웅 백 명 기 아저씨》

이 책은 우리 나라의 2중 영웅 백명기 아저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발휘한 아저씨의 빛나는 위훈을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동무들은 백명기 2중 영웅이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조국을 사랑하였는가를 이책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 *

이 모든 책들은 공화국 각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피는 꽃들
민들레
가는할미꽃
엉겅퀴
제비꽃 (오랑캐꽃)
할미꽃
앵초
미나리아재비
미나리